



덴마크 AGROMEK '89 축산박람회를 돌아보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비행기를 탔다. 외국여행은 여러번 했지만 이번에는 그 감흥이 좀 달랐기 때문이다.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을 예정보다는 수 년이나 앞당겨 찾아 간다는 것이 출발부터 가슴을 설레이게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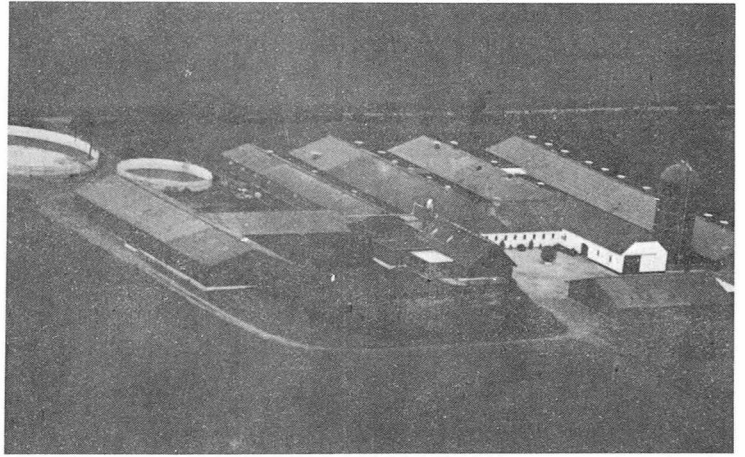
앵커리지·파리를 거쳐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에 도착하기까지 서울을 출발하여 꼬박 22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아직도 비행기를 한번 더 갈아타야만 목적지인 유틀란드반도의 중심부 헤르닝까지 갈수 있다니 참으로 먼 거리였다.

코펜하겐 공항에서 국내선으로 갈아타고 30분만에 헤르닝에 도착하였다. 헤르닝 공항에 내리니 박람회 주최측에서 여직원이 나와 반갑게 맞았다. 시내로 들어오는 동안의 전원 풍경은 그야말로 안데르센 동화속의 한 폭의 그림 그대로였다. 밭은 대부분 밀과 옥수수가 우리의 겨울 보리같이 자라나고 있었고, 들판은 초지로 조성되어 파란 잔디 또한 흡사 읍단을 깔아 놓은 듯하다. 군데군데 자리잡은 농가는 빨간 벽돌 건물인데 뾰족한 지붕 가운데를 가파르게 뚫고 나온 삼각창문이 인상적이었다. 그 옆에는 손바닥만한 노랑고 빨간 소형 승용차들이 집집마다 한두대씩 앙증스럽게 놓여 있었다. 2차선 국도를 달리는 차들은 대낮인데도 모두 헤드라이트를 켜고 주행을 하고 있었다. 운전수에게 까닭을 물어보니 덴마크를 포함한 스칸디나비아반도의 겨울은 낮에도 어두컴컴하여 항상 불을 켜고 다닌다고 한다.

정신없이 바깥구경을 하다 보니 대형 리무진은 어느새 박람회장 앞에 당도하였다. Agromek 89. 유난히 힘차게 펄럭이는 태극기가 금새 눈에 들어왔다. 박람회장의 규모는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컸다. 농

수축산신보가 주관하는 여의도 전시장만한 전시관이 A부터 시작해서 K까지 열 한 곳, 또 각 전시관은 A-1, A-2, A-3, B-1, B-2, ... 이런식으로 구분되어 하루에 4군데씩 본다고 하여도 꼬박 3일은 걸려야 할 판이다. 우선 다른 곳은 제쳐두고 제일 궁금한 양돈 관련 전시관(Pig Breeding Equipment Hall)으로 들어갔다. 약 180개의 북구라파 회사들이 참여하였는데, 전시품목은 하나같이 양돈산업의 자동화, 기계화에 주력한 흔적이 역력하였다. 사료의 급여에서부터 돈분의 처리에 이르기까지 기계화가 이루어진 듯 하다.

특히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던 돈분의 청소 문제는 덴마크 내의 여러 회사가 다투어 연구하고 있었는데, 주로 slurry system이라고 하는 공기의 음압을 이용한 분뇨자동 이동장치를 돈사말에 시설하여 모든 분비물을 일시에 간단히 폐수 처리장까지 흘려보내는 획기적인 방법이었다. 말하자면 일종의 수세식 방법이나 폐수를 줄이기 위해 물대신 공기를 이용한다는 것이 특이하였다. 덴마크엔 500만 인구가 750만두(인구당 사육두수 한국의 약8배)의 돼지를 사육하자니 그럴 법도 하였다. 비싼 임금 주고



양돈관련 전시관에는 약 180개의 북구라파 회사들이 참여, 전시품목은 하나같이 양돈사업의 자동화·기계화에 주력한 흔적이 역력하였다.

사람을 고용해서 하루종일 똥만 치다가 볼장 다 보아서야 어떻게 그 많은 돼지를 채산성 있게 길러 내겠는가?

다음 날은 이번에 나를 박람회 초청한 덴마크 친구를 따라 헤르닝 근교에 위치한 한 농장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도대체가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왜냐하면 그 친구의 말이 농장의 돼지 사육두수가 모돈을 포함 총 3,000두 규모라는데 이를 단지 두 부부가 사육하고 있다니 말이다. 다음날 아침에 농장으로 출발하였다. 군

데군데 양돈장이 눈에 띄었다. 도대체가 못쓰는 땅이라고는 손바닥 만큼도 보이지 않는다. 별로 좋지 않은 수종을 죽을 세라 심어놓고는 산림녹화 끝났다고 초지조성을 마다하는 우리의 산림행정도 한번 재고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었다. 농장의 입구에서부터 사택까지는 자갈 부스러기를 두 겹게 깔아 농장 주변이 질척이지 않고 깨끗하였다.

사택 앞에서 차를 멈추고 크락손을 짧게 울렸다. 젊은 두 내외가 점심을 먹다 말고 우리를 반갑게 맞아 들었다. 뒤에는 이제 국민학교에 들어갈까 말까한 두 꼬마가 따라 나왔다. 큰 녀석이 딸이었는데, 눈이 왕방울만 한게 한번 안아주고 싶을 정도로 귀여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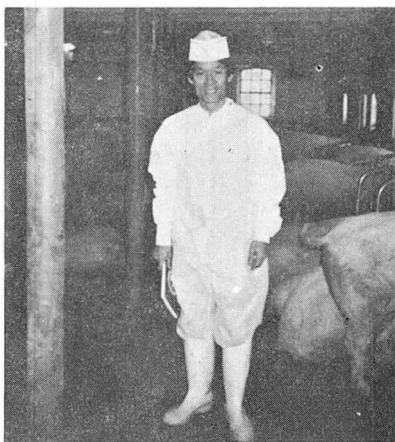
높이가 10여미터는 됴직한 커다란 싸이로가 이 농장의 자동급이 씨시스템을 말해주고 있

었다. 농장 내부는 크게 시설에 신경을 쓴 듯 하지는 않았다. 평범한 콘크리트 돈사에 뒷부분만 플라스틱베드를 약 1.2M 정도의 폭으로 깔았는데, 돈사 가운데를 지나는 60cm 정도의 통로 이외에는 다른 통로가 없었다. 사료는 자동급이기가, 분뇨의 청소는 돈사바닥의 자동수세 시스템(공기압을 이용한 분뇨의 자동 이송장치로 일명 Slurry System이라고 함)이 다 알아서 처리해 주니 별로 사람이 돌아다닐 일이 없다는 것이다. 좁은 통로가 이해가 갈만도 했다.

돈방 사이의 칸막이는 콘크리트 또는 재생 플라스틱합판으로 대부분 돈방 사이는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다. 암모니아와 메탄가스에 약한 도금 쇠파이프를 비싸게 구입하여 칸막이까지 다 둘러친 우리나라의 농장시설도 투자의 효율성 면에서 한번 재고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여러 번 들었다. 번지르하지는 않지만 효율적인 투자로 생산성을 극대화 한다는 것이다.

젊은 부부는 기계를 관리하고 기계는 돼지를 키운다. 월급만 받는 피고용인이라면 돼지의 사육상태는 보지 않고 기계에 기름칠만 하고 Slurry System인가 뭔가의 개폐운전만

**농장을 출발할 때는
참으로 기분이
상쾌하였다. 두 꼬마
녀석에게 한국에서
가지고 간 호돌이 기념
뻬지를 한 개씩 선물로
주었더니 뿔 듯이
기뻐했다.**



반복하고 다니겠지만, 그들은 피고용인이 아닌 주인인 것이다. 모든 기계의 관리와 돼지의 사육상태, 이를테면 생체중 내부의 온도 및 개스의 정도, 외부 온도, 계절의 변화, 사료의 내용, 질병의 유무, 배설물의 액화상태 등을 자세히 살펴서 기계의 조작을 달리하는 것이다.

그들은 조금도 바쁘지 않게 3,000두를 간단히 관리하고 있었으며, 또 남은 시간을 활용하여 농장 주변의 넓은 밭까지 경작하고 있었다. 방역 또한 완벽했다. 양말만 벗고 슬쩍 넘어

가 볼까 했더니 여지없이 팬티까지 벗으란다. 알몸이 되었는데 샤워장 옆의 벽장에는 "Thanks for your cooperation with us"라는 스티카와 함께 안에는 깨끗이 빨아놓은 속옷, 방역복, 모자, 코와 입을 동시에 가리는 마스크, 그리고 바닥에는 장화가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다. 돈사방문을 마치고 나오면 바로 샤워장으로 통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내부는 사우나 룸같이 후끈후끈하여 공연히 질금질금 씻다 보니까 때도 좀 밀리고 해서 이 기회에 목은 때나 한번 벗겨보자 하고 한참을 들어 앉아 발 뒤꿈치의 때까지 싹싹고 나오니까 입구에는 또 헤어드라이어, 일회용 종이수건 등이 걸려있어 본전까지 뽑고 나오는 나를 오히려 미안스럽게 하였다. 그렇게 하면서도 48시간 이내에 다른 농장을 방문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고 있었다.

농장을 출발할 때는 참으로 기분이 상쾌하였다. 두 꼬마녀석에게 한국에서 가지고 간 호돌이 기념뻬지를 한개씩 선물로 주었더니 뿔듯이 기뻐했다. 참으로 좋은 사람들이다. 성실한 사람들이다. 집으로 돌아가면 우리 아들 녀석보고 니 친구하나 생겼으니 펜팔하나 하라고 권해 줄 참이다. **美珍**